

大學_{대학}

3차시

세상의 근본은 나에게 있다.
대학의 여덟 가지 조목 (경1장 팔조목)



二學之道 在明明德 在親(親)
 安而后 能慮 慮而后 能得 古之欲明明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物格而后 知至 知至而后 意誠 意誠而后 心正 心正而后 身修 身修而后 家齊
 國治而后 天下平 自天子 以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 其本亂而末治者 否
 而其所薄者厚 未之有也 詩云 邦畿千里 惟民所止 詩云 絜齊絜爲 止于至德

3차시

세상의 근본은 나에게 있다 대학의 여덟 가지 조목 (경1장 팔조목)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고 지 욱 명 명 덕 어 천 하 자 선 치 기 국 욱 치 기 국 자 선 제 기 가 욱 제 기 가 자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선 수 기 신 욱 수 기 신 자 선 정 기 심 욱 정 기 심 자 선 성 기 의 욱 성 기 의 자
 先致其知 致知 在格物 物格而后 知至 知至而后 意誠 意誠而后 心正
 선 치 기 지 치 지 재 격 물 물 격 이 후 지 지 지 지 이 후 의 성 의 성 이 후 심 정
 心正而后 身修 身修而后 家齊 家齊而后 國治 國治而后 天下平 自天
 심 정 이 후 신 수 신 수 이 후 가 제 가 제 이 후 국 치 국 치 이 후 천 하 평 자 천
 子 以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 其本 亂而未治者 否矣 其所厚者薄
 자 이 지 어 서 인 일 시 개 이 수 신 위 본 기 본 란 이 말 치 자 부 의 기 소 후 자 박
 而其所薄者厚 未之有也
 이 기 소 박 자 후 미 지 유 야

[번역] 옛날 명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했던 이는 먼저 자기 나라를 다스렸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이는 먼저 자기 집안을 가지런히 했고, 자기 집안을 가지런히 하기를 바라던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닦았고, 자기 자신을 닦고자 했던 이는 먼저 그 마음을 바로 잡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으려 했던 이는 먼저 그 뜻을 진실하게 했고, 자기 자신의 뜻을 진실하게 하고자 했던 이는 먼저 그 앎을 극진히 했으니, 앎을 극진히 하는 것은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데에 있다. 사물의 이치가 자신에게 이른 뒤에 앎이 지극해지고, 앎이 지극해진 뒤에 뜻이 진실해지고, 뜻이 진실해진 이후에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 몸이 닦여지고, 몸이 닦인 뒤에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집안이 가지런해진 뒤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고르게 다스려진다. 천자에서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자신의 몸을 닦는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 근본이 어지러워졌는데 지말이 잘 다스려지는 경우는 없으며, 후하게 대해야 할 가까운 사람들을 박하게 대하면서 박하게 대하는 관계가 먼 사람들을 잘 대하는 경우는 아직 없다.

Blank space for notes or reflection, enclosed in a decorative border.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 物格而后 知至 知至而后 意誠 意誠而后 心正 心正而后 身修 身修而后 家齊 家齊而后 國治 國治而后 天下平 自天子 以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 其本 亂而末治者 否矣 其所厚者薄 而其所薄者厚 未之有也

Decorative border with a repeating geometric pattern. Inside the border, there are three horizontal lines for writing.